

제37회 정기총회 의사록

2018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30분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의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총회원수 : 126개사

출석회원 : 81개사 (위임 56개사 포함)

의장 김 윤 회장은 사회자의 보고와 같이 개회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개회선언하고 의안의 심의에 들어간다.

제 1 호 의안 : 2017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은 상기 1호 안건에 대해 이승호 감사에게 2017년도 수지결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사무국으로 하여금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내용을 설명케 한 후, 의견을 물은즉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에 의거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 2 호 의안 :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은 상기 2호 안건에 대해 사무국으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회비수입 및 수탁사업수입을 재원으로, 보조금회계 예산은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그 동안 쌓아온 경제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며 한일 양국 경제계의 보다 긴밀한 교류 및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즉 출석회원 전원의 동의에 의거 승인하다.

제 3 호 의안 : 임원 선임(안)의 건

의장은 사무국으로 하여금 임원선임의 건을 설명하게 하여 사무국은 비상근임원인 김승연 부회장을 비롯한 4명의 임기가 2018년 2월 27일에, 장세주 부회장을 비롯한 2명의 임기가 2018년 4월 4일에 만료됨을 설명하고, 임기만료로 퇴임을 표명한 김희용 부회장 및 박인구 부회장, 박상진 부회장, 송치호 부회장을 제외한 현 임원 전원을 재선임하기로 하다. 또한 윤부근 삼성전자(주) 부회장을 부회장으로 신규선임하고, 신규선임되는 이사는 2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기로 하다. 그리고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 회장단 각사의 인사이동 등에 의거 승계가 되는 회장단의 변경과 향후 협회의 필요에 따른 추가 임원선임을 협회장이 선임하여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자는

제약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본선임은 협회 정관 제10조(임원의 선임) 1항 및 제11조(임기)에 의하다.

- 아 래 -

직 책	성 명	소 속	의결사유	의결결과	비고
부 회 장	김 승 연	(주)한화 회장	임기만료	재 선 임	'18. 2. 27 중임
"	김 희 용	동양물산기업(주) 회장	임기만료	퇴 임	
"	박 인 구	동원그룹 부회장	임기만료	퇴 임	
"	장 세 주	동국제강(주) 회장	임기만료	재 선 임	'18. 4. 4 중임
"	박 상 진	삼성전자(주) 前사장	임기만료	퇴 임	
"	송 치 호	LG상사(주) 사장	임기만료	퇴 임	
"	윤 부 근	삼성전자(주) 부회장	선 임	선 임	신규선임

이상으로 제37회 정기총회의 의안 심의를 전부 끝냄으로써 오후 12시 1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이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이사 등 회원 3명이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18 년 2 월 28 일

사단법인 한 일 경 제 협 회

이사(의 장) 김 윤

이사(부 회 장) 이 휘 령

이사(부 회 장) 서 석 송

회원(상임이사) 박 인 구